

[찾아가는 국립공원 환경교실] 시나리오

1.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국립공원 탐방을 도와드릴 북한산서부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순영입니다. 지금부터 국립공원 환경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가까이 있지만 실상 잘 모를 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보이는 행성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과 달리 물이 있어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푸른 지구는 누가 지킬까요? (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지구는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3~6.

자 그럼 푸른 지구가 형성해준 환경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환경이란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환경을 정의할 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각각의 동식물도 주체가 되는 의미로 환경을 정의합니다. 식물, 동물, 사람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환경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환경이 대체로 잘 조성된 곳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자, 그럼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7.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하며, 환경적, 문화적, 학술적 및 휴양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보존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보전지역으로 이용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8.

국립공원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옛날 서부개척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미지의 땅을 찾아서 사유화 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몬타나주지사의 후원으로 탐험에 나선 탐험대원들은 소문과 전설로만 듣던 놀랍고 경이로운 현상-협곡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땅바닥에서 온천수가 물기둥처럼 솟아오르는 황금빛의 대륙-이 일어나는 지역과 마주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땅을 사유화 할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립공원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미국의 옐로우스톤이구요. 그 후로 약 100년 후인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1호로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유하자는 취지처럼 처음 국립공원제도는 관광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이 찾게되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해지자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보전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립공원관리의 개념이 이용중심에서 보전과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9.

자 이제부터 우리의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국립공원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대답유도, 선물~!) 우리나라에는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육지면적의 3.9%, 해양까지 포함한 면적은 전국토면적의 6.6%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에는 전체 동물종의 72%, 식물종의 64.3%, 전체 천연기념물의 70%, 희귀멸종우려식물의 65%, 동물의 60%, 특정야생동물의 85%, 식물종의 60%가 서식하고, 우리나라 2,858점의 문화재 중 23%인 661점의 문화재가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지금 보이는 모습은 관리 성격이 다른 두 숲의 풍경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숲은 소나무 단일 종으로만 이루어진 숲입니다. 소나무 외 다른 식물은 모두 잡목과 잡풀로 여겨 제거한 이런 숲은 산불에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숲은 각각의 식물들이 제 위치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숲입니다.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숲의 모습이지요. 이런 건강한 숲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풍부한 바람직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립공원으로의 사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11.

자 그럼 한국의 국립공원으로 사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12~19. 국립공원사진설명

20.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대요? (대답유도)
네, 16개의 산악공원과 3개의 해상공원이 있으며, 사적공원이 1개로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적공원인 경주국립공원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을 환경부산하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21.

북한산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중생대 쥐라기에 생성된 북한산과 도봉산은 문헌상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하며, 고려시대에 삼각산, 조선시대에 북한산이라고 불립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과 함께 5대 명산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도시에 둘러싸여 생태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도시에 녹색허파이자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해 450만명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15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22.

자운봉에서 바라다 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녹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회색 도시라는 말이

실감되지 않으세요? 건너편에 보이는 산은 무슨산인가요? (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와 이웃하고 있는 수락산인데요. 옛날에는 두 숲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개발로 인해서 두 산의 연결통로라고 할 수 있는 녹지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23.

현재 수도권에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모두 이렇게 뻑뻑이 들어선 아파트 숲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작은 녹색공간을 볼수가 없는 답답한 풍경입니다.

24.

하지만 북한산은 이런 회색도시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녹색허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무1그루당 4명이 숨쉴수 있는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5.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과물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무감각합니다. 또한 숲이 주는 혜택을 보통 나무그늘이나 목재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공기정화나 물의 정화와 저장, 산사태와 홍수예방 등 연간 숲이 주는 혜택을 경제적으로 셈한다면 1인당 80~1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6.

자 그럼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생태계란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분 있나요?(대답유도-생태계란 어떤 환경에서 존재하는 생물간의 먹고먹히는 자연적인 공동체를 뜻함) 이러한 생태계는 땅위뿐만 아니라, 땅속, 물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땅위에서만이 아니라 땅위와 땅속, 그리고, 땅위와 물속, 땅속과 물속 등 모든 것이 연결고리인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은 마치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전기에너지 대신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 유기물질을 만들며, 그 과정에서 산소가 생깁니다. 이런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는 식물안에 있는 유기물질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서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에서 되돌아가는 에너지 순환의 과정을 먹이사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산초나무는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호랑나비는 산초나무처럼 냄새가 진한 운향과 식물에만 알을 낳아 산초나무를 먹고 자란 애벌레는 호랑나비가 됩니다. 따라서 산초나무가 없다면 호랑나비도 없어지게 되구요. 호랑나비가 없다면, 산초나무는 수분을 할 수 없어 열매를 맺기 힘들어져 번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돕는 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27.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이 주는 혜택과 생태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의 경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도봉산의 주요 암봉인데요. 왼쪽부터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한산을 높고 웅장한 산으로 여겼으며, 지금처럼 정비된 탐방로도 장비도 없어 정상에 오르지 못하여 저 봉우리들을 담고 있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신성한 산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28~29.

이곳은 다섯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오봉이라고 합니다.

30.

이곳은 높이가 552m로 조선선조의 여섯째 딸 정휘옹주가 유정량에게 시집갈 때 임금이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사패산으로 불리었다는 것과 산아래 마패를 제작하는 곳이 있어 그 지명이 유래 되었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31.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어떤 친구들은 성모마리아 같다고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기도 했는데요. 소의 귀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이암입니다. 도봉산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소의 귀처럼 보이지 않지만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소의 귀처럼 보입니다. 산악인의 초보 암벽훈련코스 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암벽타기를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32.

자 그렇다면, 중생대 쥐라기에 만들어졌다는 북한산국립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을까요?

도봉산은 공룡이 살던 1억5천만년전 중생대 쥐라기 지각운동 때, 땅 속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면으로 올라온 후 1억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각운동과 풍화, 침식작용을 거쳐 지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기암이 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이 되었습니다. 즉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땅이 깎였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북한산과 도봉산이 만들어졌습니다.

33.

그렇게 만들어진 북한산과 도봉산의 주요암석들은 바람에 의한 기계적 풍화 외에도 물과 광물 성분중 일부가 반응하는 화학적 풍화에 의해 바위에 구멍이 뚫리거나, 동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 암석은 다양한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암들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네..각자 부르는 이름이 다를텐데요. 저희 도봉산에 오셔서 이러한 기암들에게 자기만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산을 다녀간 여운이 더 오래남을 것 같습니다.

※ 화강암에 대한 부연설명

1. 화강암은 크기가 비슷한 크기의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어 수평과 수직으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음.

2. 수평과 수직 절리로 쪼개진 암석의 모서리는 풍화작용에 의해 둥글둥글하게 깎임.

-----> 흔히 바위 꼭대기에서 보이며, 핵석(Core stone)이라 함

3. 호박바위(토르) : 핵석이 여러 개 쌓여서 성곽이나 석탑 돌무더기로 만들어진 지형

∴ 핵석이 쌓여서 호박바위(토르)가 됨

4. 너덜바위(애추, talus) : 경사면을 따라 작게 쪼개져 비탈면에 쌓인 바위

빙하기에 주로 기계적인 풍화작용으로 암벽의 바위가 떨어져 쪼개져서 만들어진것

5. 나마 : 수분이나 염분에 의해 암석의 약한 부분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킨 것. 풍화혈이라고도 함

6. 정동 : 지표가까이에서 굳어진 마그마가 외부 압력의 감소로 내부 수증기와 휘발성 가스가 빠져나와 생긴 공간

7. 북한산국립공원은 주로 수직 절리가 발달하여 웅장한 남성적인 느낌의 산이되었고, 월출산은 수평 절리가 발달하여 여성스러운 산의 형태가 되었음

(자연해설에서도 그러하듯 식물이나 암석등의 용어해설은 참가자에게 그다지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바위가 어떤 원리로 형성이 되어 지금에 오게 되었는지 과정이 중요한듯 합니다. 정동, 토르 등의 어려운 용어를 주입시키기 보다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 그 바위가 탄생한 과정을 이야기 하듯 풀어나가 주십시오)

34.

그렇다면 이런 바위에 어떻게 나무가 자라 숲이 형성되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바위의 알록달록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의류라는 일종의 식물군인데요, 지의류가 바위면에 붙어서 화학작용을 하여 바위에 약간의 흙층을 형성되면 이끼류가 그 흙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끼가 서식하게 되면 적당한 수분과 양분이 생겨 초본류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척박한 토양에서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숲은 이런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35~36.

숲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형의 고저에 따라 산세가 형성되고 경사면을 따라 물이 모이게 되는데 가장 낮은 지점으로 모인 물들이 계곡을 형성합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들이 빔어내는 북한산국립공원의 멋진 계곡으로 원도봉계곡과 송추계곡이 있고, 예전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이 있습니다. (도옹선배 여담??)

37~38.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관을 잘 감상하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식물들의 꽃입니다. 꽃의 색이 어떤 빛깔인가요?(대답유도)대부분의 곤충들은 붉은색을 녹색과 비슷하게 보는 색맹이라서 겨울에 피는 동백꽃처럼 새에 의해 수분을 하는 식물외에는 흰색계절의 밝은 빛을 선호합니다. 반면 빨간색을 잘 인식하는 새들의 힘을 빌어 씨앗을 멀리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열매는 붉은 색을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숲에 사는 식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39.

지금 보이시는 것은 북한산국립공원의 교목중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나무의 1년생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소나무로 떡잎의 개수가 여러개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활엽수인 참나무로 떡잎이 한쌍이고, 땅속에 묻혀있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소나무같은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1억년 정도 먼저 태어났으며, 기관을 들여다 보면 활엽수에 비해 덜 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은 활엽수와 침엽수의 세포단면입니다. 어떤 것이 활엽수이고 어떤것이 침엽수일까요? (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그림이 활엽수로 구멍이 크게 뚫려있는 이것은 물관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침엽수로 어떤것이 물관인지 구분하기 힘든 헛물관이 있습니다. 활엽수의 물관은 넓게 포장된 도로처럼 크고 뽕뽕 뚫려있는 것과 달리 침엽수의 물관은 헛물관으로 좁고 중간중간 끊어진것을 매듭짓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 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어 물을 훨씬 많이 흡수해 광합성 하면서 숲속의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반면 침엽수는 척박한 토양에서 뿌리내려 땅을 비옥하게 하다가 활엽수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집니다.

40.

숲의 땅위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동안 땅속에서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 흙속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고, 배설물과 사체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땅속벌레가 있습니다. 박각시애벌레는 땅위에서 지내다가 번데기 시절을 땅속에서 보내고, 다시 성충이 되어서는 땅 밖으로 나와 생활합니다. 개미역시 땅속에 집을 짓고 생활하며, 진딧물과 서로 협동하여 살면서 간혹 무당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식물의 열매맺기를 도와주는 호랑나비와 벌레들의 포식자인 거미가 있습니다. 또 알에서 막 깨어난 노린재 등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낼까요?

41.

호랑나비의 일생입니다. 순서를 말해보세요.

42.

정답은?? 3-4-1-5-6-2입니다. 애벌레 단계의 호랑나비는 산초나무 같은 운향과에 속하는 향이 진한 나뭇잎을 먹고 자라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마치 스텝크가 방귀를 꾸듯 저장해 놓은 독한 냄새를 내뿜습니다. 또한 지금 이 나뭇잎과 애벌레의 색이 어떻게 보이세요? 거의 같은 계열의 색으로 보이시죠? 모든 동물은 이렇게 보호색을 갖고 있습니다. 애벌레 다음단계인 번데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검은색과 흰색의 빛깔로 멀리서 보면 새똥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합니다. 각 단계 설명 후 넘어가기.

43.

땅속과 육상 뿐 아니라 계곡의 물속에서도 낙엽 등의 부유물을 정화시켜주며 살는 날도래, 강도래, 잠자리 유충 같은 수서곤충이 있고, 땅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양서류인 개구리와 북한산의 단일 어종인 버들치가 있습니다. 이런 물속 생태계도 육상과 연결되어 먹이사슬이 형성됩니다. 사진은 검정해오라기가 버들치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44.

숲에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숲에서 새들이 들려주는 향연은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내인 관계로 새들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례로 소리를 들려준다. 퀴즈. 박새는 숲속의 참새처럼 많은 종이 살고 있음. 동고비는 독특한 발 구조덕분에 나무를 아랫방향으로 타고 내려올 수 있음. 또한 딱따구리집을 진흙으로 입구를 좁혀 사용하는 리모델링의 최고 건축가. 딱따구리는 나무의 의사이며 다른 새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건축가, 오목눈이는 알색이 2가지로 푸른빛과 흰빛이 있음. 뺨꾸기의 탁란으로 유명, 새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며 탁란 후 각인교육을 위해 뺨꾸기가 주변에서 우는 소리를 어렵듯이 들을 수 있음 확인.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탁란된 뺨꾸기의 알이 부화한 후 오목눈이가 뺨꾸기임을 알아채고 일부러 굶겨죽이는 경우가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아울러 뺨꾸기도 오목눈이의 소리를 모방하는 등의 진화경

향을 보임

45.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계곡에서 촬영한 중대백로의 먹이사냥모습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까.

46.

산에서 새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새와 사람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를 잡아주는 것도 새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새가 살아가는 숲은 건강한 숲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리로 자신의 영역권을 알리고, 짹짹기도 노래를 통해 하는 새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때로는 야호소리에 고막이 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숲에서 큰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47.

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것으로 알 수 있듯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에 있으나 풍부한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개발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과 인근 산 등 주변의 녹지와 축을 연결하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48.

누구의 흔적일까요? 멧돼지의 흔적입니다.

누구의 똥일까요? 똥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봐서 몸집이 작은 동물일 것 같은데요. 족제비...이런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북한산에서 지켜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애완동물을 산에 데려오면 안되는데요. 우선은 야생동물들에게 있는 병원균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백신이 없습니다. 즉 야생동물의 병을 애완동물이 옮길수도 있으며, 다람쥐나 두더지 같은 설치류(쥐)의 벼룩이 애완동물에서 옮겨가면 사람이 유행성출혈열등에 감염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숲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도 애완동물들에게 있는 병원균에 노출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산하면 안되겠죠?

49~50.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은 또한 수도권에 살아있는 역사문화 박물관입니다. 계곡이 맑고 수려한 도봉계곡에는 옛날 국립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향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학자들의 제를 올렸던 수도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인 도봉서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도봉서원을 중심으로 이곳의 경치에 반해 다녀간 시인과 학자들이 남긴 글씨는 지금도 옛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도봉서원과 더불어 도봉산에는 옛날부터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망월사, 회룡사, 천축사, 석굴암등의 고찰과 더불어 중요한 문화재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망월사 태흘탑과 혜거국사 부도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면서 국립공원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망월사내 천봉선사탑비 등 3점과 회룡사내 석조와 석탑 등 3점, 원효사의 한글음역묘법연화경, 만월암 석불좌상과 도봉산 철불좌상 등 총 9점의 유형문화재와 연산군묘와 같은 주요사적이 있

습니다.

51.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국립공원은 누가 관리할까요? 네 바로 저희같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자연보전, 시설, 탐방서비스, 민관협력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52.

자연보전분야에서는 계곡 상단등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상가나 건물을 철거시켜 복원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에 있을 복원에 대비합니다. 식물과 곤충 같이 고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외에 동물처럼 밤에만 관찰되는 생물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53.

야생동물 울무를 제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무등에 걸린 동물을 구조해 동물보호협회에 인계하며,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원내 쓰레기 정화 및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유해식물인 돼지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54.

또한 계곡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파괴된 자연의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5.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화장실 등 탐방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56.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탐방로 위험구간에 로프를 설치하고, 호우 등으로 인해 유실된 탐방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57.

탐방서비스 분야에서는 탐방객구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해설프로그램 등 체험학습과 바람직한 공원탐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8.

또한 찾아가는 국립공원 탐방서비스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가까이 있는 학교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구요.

59.

국립공원사진전을 통해 당선된 사진과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기도 합니다.

60.

자연해설 프로그램 예약방법 설명

61.

다음은 민관협력분야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구 인근의 인사를 국립공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공원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얻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취락지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공원관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62.

국립공원은 다른 일반적인 숲에 비해 훨씬 더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있어서 보물다루듯 소중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국립공원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3.

자원봉사제도 신청 방법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통해 여러분은 북한산지킴이가 될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원봉사로 북한산 국립공원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64.

지구의 나이 46억년을 1년으로 봤을때 인간이 태어난 시간은 고작 12월 31일 오후 11시 45분이라고 합니다. 불과 15분동안 우리가 푸른 생명체로 빛나는 지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앞으로 일어날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들의 예고처럼 느껴져 가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세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주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지켜야할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우리나라 환경지킴이가 되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꾸는 푸른 지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 북한산국립공원에는 호랑이도 살고 지리산에 있는 반달가슴곰도 살았던 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지역만 제외하고는 사방이 도로로 막혀있고, 국립공원도 정상을 향해 오르며 자연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5마리의 자생반달가슴곰 외 총 1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방사되었습니다. 지금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옛날에는 지리산에서만 200~300마리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천황에게 헌납하라는 명령으로 잡아들인 개체수가 대략 140마리로 이후에도 끊임없는 밀렵으로 멸종위기종이 된 반달곰은 과연 다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지리산의 면적은 개발로 인해 많이 좁아졌지만, 환경모니터링과 연구결과 지금의 지리산에도 50마리의 반달가슴이 서식 가능한 숲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자연으로 돌아가 옛날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어 고립된 섬인 북한산국립공원도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감성적이고 설득력있게 말씀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연기 필요. ^^ v)